

Tech Dossier

“윈도우 10의 끝, 새로운 기회의 시작”

업무 생산성 높이는 윈도우 11과 AI PC 도입 로드맵

- > “코 앞까지 닦쳤다” 윈도우 10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관리 부담
- > “선택 아닌 필수” 기업을 위한 윈도우 11 PC 마이그레이션 원칙
- > HP와 윈도우 11의 만남 “AI PC 시대를 열다”
- > 윈도우 11 리프레시와 IT 환경 전환의 동반자, HP



HP EliteBook Ultra G1i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IDG Korea의
자산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DG Korea의 허락 없이 PDF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제
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윈도우 10의 끝, 새로운 기회의 시작”

업무 생산성 높이는 윈도우 11과 AI PC 도입 로드맵

업무용 PC는 직원이 출근해서 제일 먼저 전원을 켜는 기계일 뿐 아니라 직원의 업무 만족을 좌우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데이터를 입력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도구를 넘어, 직원의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서비스와 제품으로 실현하는 단순 디바이스 이상의 존재다. 전사적 기업 비전과 정책은 모두 누군가의 업무용 PC에서 시작되고 출발한다.

그런 만큼 업무용 PC를 중심으로 한 기업 IT 환경을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현명한 투자다. 최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는 직원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고, 전사적 업무 생산성과 경쟁력까지 강화한다.

그럼에도 많은 기업의 업무환경은 여전히 레거시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 관행이나 비용, 변화 관리에 대한 부담 등으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업무용 PC 환경이 오래될수록 기업에는 적신호다.



IT 시장 분석 기관 테크아일(TechAisle)은 4년 이상 된 PC를 유지하는 데 연간 1,700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보도한 바 있다. 구형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 관리의 부담이 더해지면 적지 않은 예산이 매일 조용히 낭비되는 셈이다.

사실 업무용 PC 환경의 업그레이드를 고민할 시간은 그리 충분하지 않다. 윈도우 10이 2025년 10월 14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 보안 패치 등의 제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도 직원 경험의 품질이 곧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업무 생산성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내부 인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매일 사용하는 업무용 PC에서부터 마이그레이션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방법일 것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스마트 업무 도구와 협업 환경이 확산되는 지금, 최신 운영체제와 PC로 내부의 역량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기업 미래 전략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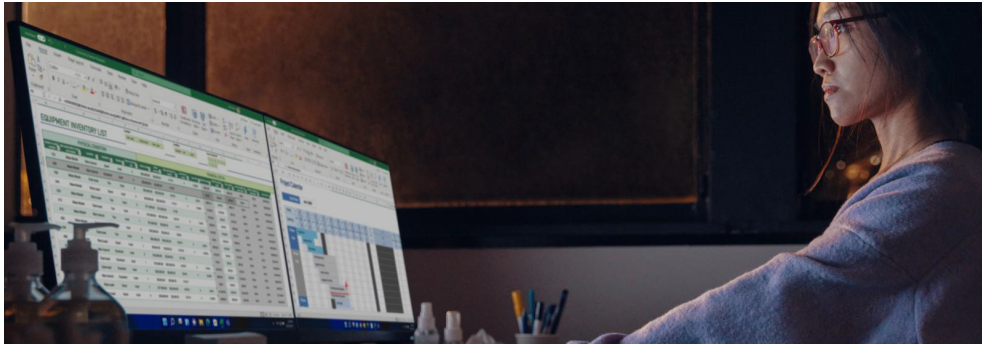
“코 앞까지 닦쳤다” 윈도우 10 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관리 부담

현실적인 위험도 가까이 와 있다. 윈도우 10 PC가 곧바로 실행 불가능한 디바이스가 되지는 않지만, 빠르게 진화하는 보안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남아 기업에 보안 격차라는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 틈을 노리고 아직 윈도우 10을 사용하는 기업 IT 환경을 집중 공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보안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악성코드 감염률도 높아진다. 방화벽이 있기는 하지만, 수많은 내부 직원이 일상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파일이나 이메일을 연다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 도난, 시스템 중단, 랜섬웨어 감염 등 기업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사도 업데이트나 보안 픽스 지원을 중단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는 2025년 10월 윈도우 10과 함께 지원이 종료된다. 여전히 사용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능과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GDPR이나 HIPAA 같은 데이터 보호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규정준수의 영향 하에 있는 기업은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소한의 보안을 확보하지 않은 운영체제를 사용함으로써 벌금이나 법적 책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용 PC를 중심으로 한 업무환경 업그레이드는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직원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PC나 노트북을 교체하고, 새로운 운영체제에 맞게 기업 내 시스템을 구성하고 배포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IT 부서의 어깨도 무겁다. 디바이스 통합 플랫폼 업체 점프클라우드(Jumpcloud)의 2022년 설문조사에서는 기업 IT 관리자의 53.4%가 원격 및 하이브리드 직원과 디바이스 관리가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가트너 정량적 혁신팀 리서치 디렉터인 란짓 아트왈은 “디바이스가 오래될수록 TCO(총소유비용)가 증가한다”라며 기업에서 구형 디바이스를 지나치게 오래 사용할 경우, IT 부서의 책임과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든 요소는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으로 이어진다.

윈도우 11은 이런 위협과 부담을 없애고 더욱 기업에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체제로 자리잡았다. 안전과 무결성을 중시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도입해 사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로 인증 또는 권한 부여를 결정하고, 적시에 적절한 액세스를 지원하며, 엔드 투 엔드 검증 암호화 및 분석으로 위협 탐지 가시성을 확보했다.

하드웨어 기반 보안도 강점이다. 윈도우 11의 필수 보안 요소인 TPM 2.0(Trusted Platform Module 2.0)과 플루톤(Pluton) 프로세서는 디바이스와 신원, 요청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면서 제로 트러스트 모델 구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TPM 2.0은 윈도우 11의 최소 구성 요건이자 메인보드에 부착된 보안 전용 하드웨어다. BitLocker 키를 포함한 암호화 키를 저장하고, 운영체제가 부팅되기 전 BIOS/UEFI 단계에서 보안을 검증하며, 플랫폼 무결성을 확인하는 등 하드웨어 수준에서 암호화 연산을 수행하므로 소프트웨어 공격을 방어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SoC인 플루톤 보안 프로세서는 정기적으로 보안 및 기능이 업데이트되는 유일한 보안 프로세서다. 암호화 키를 외부로 노출하지 않으므로 신뢰할 수 없거나 서명이 없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하는 스마트 앱 제어를 지원한다. 악성 애플리케이션이나 해킹된 웹사이트에 자격 증명 정보를 입력할 경우 사용자에게 경고를 나타내는 피싱 탐지 보호 기능이 내장됐다. TPM 2.0과 마찬가지로 플루톤 역시 CPU 내에 하드웨어 기반 보안을 통합하고, TPM의 기능을 대체·보완한다.

또한, 윈도우 11에서는 모든 엔드포인트에 자동화 프로비저닝, 구성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간소화 지원하고, IT 관리자를 위해 수동 구성 없이 디바이스를 배포하는 기능을 통해 IT 부서가 디바이스 설정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하이브리드 업무환경과 더욱 다양해진 직원 요구

업무환경은 이미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통적인 사무실 업무환경에는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기업과 직원 모두 원격 또는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가능성과 상상 속에 그쳤던 급격한 변화가 빠르게 자리잡은 데에는 윈도우 11을 위시한 기업 IT 환경의 역할이 큰 기여를 했다.

구형 디바이스에서 경험한 불만족이 해소되면 직원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2023년 어도비의 설문조사에서 레거시 기술이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답한 직원 비율은 무려 89%에 달했다. HBR의 조사에서는 음성이나 영상 품질 때문에 원격 회의가 중단되고 의사 소통이 저해됐다는 응답자가 50%를 넘었다.



“선택 아닌 필수” 기업을 위한 윈도우 11 PC 마이그레이션 원칙

포레스터의 연구에서 윈도우 11 디바이스는 최종 사용자 생산성을 10~15% 끌어올렸고, ROI나 보안 강화, 관리 효율성 등 여러 면에서 큰 장점을 보였다.

네오윈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윈도우 11은 발매 이후 꾸준히 점유율을 높였다. 이는 곧 기업이 윈도우 10 설치 PC를 중심으로 한 업무 환경의 마이그레이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에버레스트 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프라브닛은 “기업에서 강력한 보안과 우수한 사용자 환경을 유지하려면 윈도우 11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윈도우 11 디바이스로 마이그레이션하기 위해 기업은 신중한 고려와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우선 시스템 감사를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업그레이드와 마이그레이션, 교체가 필요한 인력과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결정한다.

다음으로는 애플리케이션 호환성, 예산, 대상 디바이스, 교체 기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계획을 항목별로 구체화해야 한다. 전반 두 단계에서는 윈도우 11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업무용 PC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퍼레이트 라이선스 비용 등을 산정하고, 기존의 하드웨어가 TPM 2.0 기반의 보안 부팅이 가능한지 확인하며, 윈도우 10과 11의 호환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대

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보안 부문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살펴보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 규정 준수에 대한 기본 정보와 새로운 관행, 보안 위협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윈도우 10의 지원 종료는 곧 사이버 공격과 위협에 대비해 기업 디바이스와 인력 모두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드웨어 기반 암호화 및 실시간 위협 탐지 등 앞으로의 업무용 PC에 필요한 최신 보안 기능과 솔루션을 탐색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HP 프로액티브 인사이트(HP Proactive Insights) 등 우수한 엔터프라이즈 관리 및 모니터링 도구의 장점을 파악하고, 원격 접속 시 안전한 인증 프로세스와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지원하는 PC를 목록화한다.

마지막으로 마이그레이션 계획에서 파악한 부서별, 인력별 요구와 다양한 업무환경을 모두 수용하는 동시에 최신 AI 기능까지 지원하는 윈도우 11 PC를 선정해야 한다. 고성능 CPU와 GPU, 디스플레이, 무게 등 개발과 디자인, 영업, 재무 등 각 부서별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 다양한 플랫폼과 함께 보안, 협업, 생산성에 특화된 고유 기능을 지원하는 기업용 PC를 선정하면 사용자 경험을 제고할 수 있다.





새로운 업무용 PC는 사무실 외에 자택에서도, 이동 중에도, 출장이나 여행 등 다양한 위치에서도 쉽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행 및 시작 속도와 충분한 배터리 수명을 지원해야 한다. IT 부서나 개발자에게 필요한 고급 기능이나 성능은 물론, 일상적인 애플리케이션이나 특정한 업무용 워크로드를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디에서든 어떤 기기에서든 생산성을 높여주는 클라우드 속 PC라는 개념으로 윈도우 365(Windows 365)를 통한 하이브리드 업무환경 전략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클라우드의 장점과 보안적 강점을 간편한 PC 환경과 결합해 다양한 업무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장점도 많다. 일하는 장소나 장치가 바뀔 경우에도 맞춤형 앱과 콘텐츠, 설정 등 직원에게 익숙한 윈도우 환경을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다. 기업 앱과 데이터는 클라우드 PC에서 보호되므로 직원은 일하는 장소와 관계 없이 안정적이고 확장성 있고 안전한 최종 사용자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물론 조직의 복원력과 융통성, 비즈니스 연속성 역시 보장된다.

■ 윈도우 11과 AI PC로 지속가능한 IT 구현하기

기업의 입장에서 또 하나 고려할 점은 윈도우 11 디바이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IT(Sustainability) 구현이다. 기업은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고 운영 효율성을 향상해 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윈도우 11과 AI PC는 AI 전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작업 효율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줄인다. 전력 효율 기술이 높은 최신 AI 프로세서를 탑재한 AI PC는 직원의 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전력 사용을 줄이고, 더욱 친환경적인 전력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HP와 윈도우 11의 만남 “AI PC 시대를 열다”

AI라는 막연한 최신 기술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화한다면 바로 윈도우 11를 탑재한 AI PC일 것이다. 윈도우 11은 코파일럿+와 AI 가속 등 새로운 시대의 AI PC에 맞춰 설계됐다.

AI는 특히 엔터프라이즈를 위주로 빠르게 필수 기술로 자리 잡는 추세다. IDC는 2024년 APAC 지역의 데이터, AI, 생성형 AI와 인사이트 설문조사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기업의 81%가 AI를 사용하고, 60%가 생성형 AI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환경에서 진정한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직원의 AI 활용 능력이 높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AI를 지원하는 PC 환경이 필수적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생산성 기능과 그를 뒷받침하는 보안 기술이 모두 필요한 것이다. 윈도우 11을 지원하는 PC는 AI PC의 최소 전제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관리와 보안 면에서도 더욱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기업용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윈도우 11 PC의 예시가 바로 세계적인 PC 제조업체 HP의 PC다. HP는 윈도우 11 출시 당시부터 새로운 PC 라인업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개선된 UI, 성능 향상, 보안 강화 등 윈도우 11과 HP 디바이스와의 시너지를 강조해왔다.

HP CEO 엔리케 로레스 역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출시된 AI PC가 PC 시장 성장을 이끌 것이며, 향후 전체 PC 시장의 상당 비율을 윈도우 11을 기반으로 한 최신 PC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HP는 다양한 가격대와 성능의 최신 PC 라인업에 집중하면서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규모와 성능 등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기업 IT 환경을 전체를 아우르는 폭넓은 생태계가 특징이다.

AI PC란?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AI PC는 코파일럿 키를 지원하고 최소 40TOPS의 연산 성능을 갖췄으며, 플루톤 등의 최신 보안 칩과 NPU를 탑재한 SoC 기반 디바이스다. AI PC는 화상회의의 자막 생성과 배경 흐림 처리, 문서나 회의록 요약 등 빠른 작업을 로컬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디바이스의 AI 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여 최대한 많은 작업을 로컬에서 처리하므로 클라우드 의존도와 데이터 유출 위험, 지연 시간이 줄어든다. 고성능 AI 연산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므로 사용자 경험과 생산성을 높인다.

AI의 핵심, 윈도우 코파일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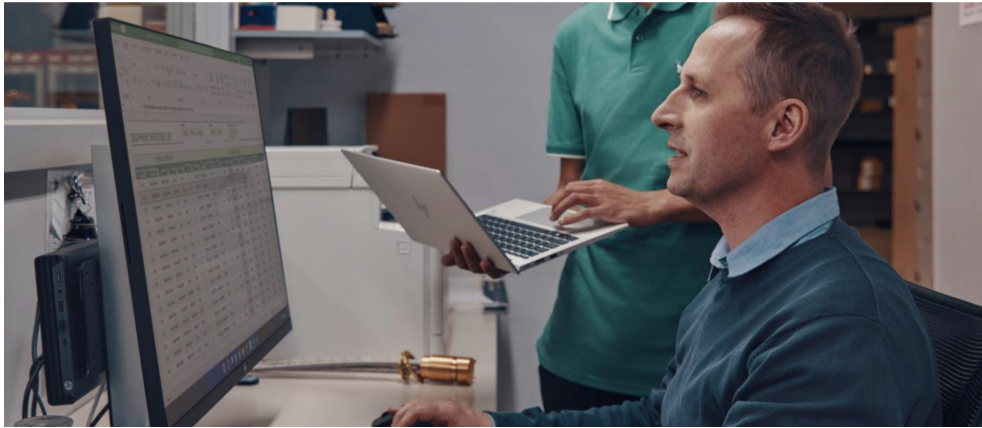
윈도우 11은 AI 기반의 디지털 어시스턴트인 윈도우 코파일럿을 기본으로 통합했다. 코파일럿은 단순한 검색이나 명령 수행을 넘어 생산성, 접근성, 시스템 제어 등 광범위한 작업을 시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코파일럿은 파워 포인트, 워드, 엑셀 등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과 긴밀히 통합되어 문서 요약과 데이터 분석 등의 업무가 한층 쉬워지며, 직원 개인의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맞춤형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

개인 사용자뿐 아니라 기업 IT 부서에서도 각종 스크립트를 빠르게 생성하고, 기업 내 직원 대상 문서 배포를 자동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설정이나 시스템 오류 안내 등 보안 정책을 더욱 직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HP는 윈도우 11 업그레이드에 발맞춰 직원 개인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사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다양한 윈도우 11 디바이스를 제안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보안과 AI 면에서 필수적인 최신 기술을 담은 AI PC에 주목할 만하다. HP는 모든 제품에서 AI 연산 성능과 온디바이스에서의 AI 활용을 강조한다. 또한, 강력한 보안 솔루션과 협업 지원 기능, 친환경 설계, 어떤 업무 환경에도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폼팩터로 업무 혁신과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





■ 하드웨어 수준의 강력한 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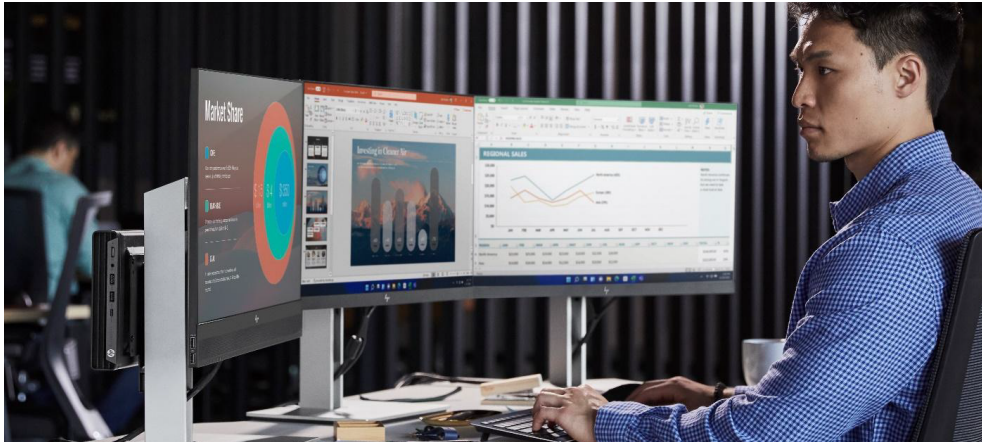
기업 디바이스를 노리는 공격은 대부분 데이터 유출이 목적이고, 보안 사고는 평판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복구 비용도 높다.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이버공격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엔드포인트 디바이스 자체의 보안일 것이다. 엔드포인트 디바이스는 다양한 사이버공격의 주요 진입 지점으로 꼽힌다. 업무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내 엔드포인트 수가 늘어났고, 모든 엔드포인트는 잠재적 진입점이 될 수 있다.

강력한 엔드포인트 보안은 HP PC 생태계 전반이 공유하는 고유한 강점이다. 업무환경이 다양해지고 기기 분실이나 데이터 도난 등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HP의 보안 솔루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리적 침해가 발생하면 HP 텀퍼 락(HP Tamper Lock)이 위험 알림을 보내고, PC와 내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한 보호 조치를 실행한다. HP 울프 프로텍트 앤드 트레이스(HP Wolf Protect & Trace)는 분실한 디바이스를 추적하거나 잠그고 데이터 삭제까지 지원한다.

HP 슈어 스타트(HP Sure Start)는 별도의 설정 없이 모든 지원 플랫폼에서 사용 즉시 보호가 활성화된다. 또한, HP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컨트롤러(HP Endpoint Security Controller) 기반의 고유 보안 기술로 HP 원본 BIOS와 주요 펌웨어를 하드웨어 단계에서 격리하므로 외부 공격에 효과적이다.

또한, 자동으로 악성코드 공격을 감지하고, 위험 이벤트를 기록해 IT 부서에 제공하며 가장 최신의 유효한 BIOS나 펌웨어 버전으로 복구해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보호하지 못하는 주요 펌웨어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특히 슈어 스타트는 BIOS나 펌웨어가 메모리에서 실행되기 전 단계부터 코드의 유효성을 검증해, 운영체제 부팅 전에 이루어지는 루트킷 등 대다수의 펌웨어 공격을 차단한다. 또한, 부팅 순서나 보안 옵션 등의 BIOS 설정이 외부에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며, 변경 시 암호화 로그를 생성해 IT 부서에 알리므로 기업이 더욱 스마트하게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다.

■ 사무실과 재택, 이동 중인 인력 모두에게 HP만의 협업 환경을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하는 새로운 업무환경은 기업에 있어 정책과 하드웨어 모두의 개선을 요구한다. 직원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은 더욱 유연한 근무 제도를 장려하는 동시에 직원의 PC 품질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온라인 회의는 접근성의 제한을 없애 의사소통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지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재택이나 하이브리드 근무를 선호하는 직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가져다준다. 2025년 현재 미국 내 62%의 기업이 하이브리드 근무를 허용하고, 70%의 원격 근무자는 사무실보다 원격 근무가 더 집중력이 높다고 느낀다.

포레스터의 보고서¹에서 비즈니스 리더들은 직원이 짧은 배터리 사용 시간, 느린 처리 속도, 보안 부족, 모바일 친화성 등 일상적인 업무에서 평균 3.5개의 기술 문제에 직면한다고 답했다.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 PC는 우수한 성능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하이브리드 근무 환경 최적화에서 현대화된 PC의 역할에 대한 이해 MICROSOFT 의뢰 FORRESTER CONSULTING THOUGHT LEADERSHIP 보고서, 2021년 7월

새로운 업무용 PC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HP의 윈도우 11 PC는 단순 기기가 아니라 비즈니스 목표를 위해 직원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줌, 슬랙 등 다양한 협업 애플리케이션과 윈도우 11의 결합으로 직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다. 특히 엘리트북과 프로북 시리즈 등의 비즈니스 노트북은 윈도우 11 프로와 함께 어떤 업무 환경에서도 생산성과 협업 효율을 극대화한다.

HP 엘리트북 울트라 시리즈, 엘리트북 X, 엘리트북 8 시리즈는 각각 최대 900만 화소 및 5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하며, 최적화된 화상회의를 위한 Poly Camera Pro와 Poly Studio가 기본 장착되어 있다.

HP 콜라보레이션 툴(HP Collaboration Tools)은 사무실 근무와 원격, 현장 직원 모두에게 실시간 문서 편집과 파일 공유,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또한, 업계 최고의 배터리 수명과 고성능을 제공해 하이브리드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의 어려움을 해결한다. HP 노이즈 리덕션(HP Noise Reduction), HP 프레즌스(HP Presence) 등 AI 기반의 원활한 화상 회의 기술을 지원한다.

HP 프레즌스는 500만 화소 고화질 카메라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고, 화면 여백을 최적화해 화상회의 참여자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HP 오토프레임 등 일상화된 협업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또한, 직원은 팀즈나 줌 같은 커뮤니케이션 앱의 화면과 오디오 설정을 단일 대시보드에서 제어하는 마이HP(myHP) 애플리케이션으로 한층 더 쉽게 전문적 화상회의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HP는 화상회의 중에도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프라이버시 필터 옵션을 제공하는 HP 울 프 시큐리티와 HP 슈어 뷰 등 기업 내외 협업에 특화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HP 슈어 셔터(HP Sure Shutter)와 HP 프라이버시 카메라(HP Privacy Camera)처럼 언제 어디서나 직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보유했다.

HP 엘리트북 울트라 및 엘리트북 X 시리즈는 1.2Kg 미만의 초경량 설계로 뛰어난 이동성을 제공하며, 최대 24.5시간 사용 가능한 One Day 배터리와 화면 엿보기를 방지하는 HP 슈어 뷰(HP Sure View) 기능을 통해 보안성과 휴대성을 모두 갖춘 탁월한 제품이다.

또한, HP 엘리트북 X시리즈, 엘리트북 8 시리즈는 각각 최대 900만 화소 및 500만 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를 탑재할 수 있으며, 프리미엄 사운드를 위한 뱅앤올룹슨(Bang & Olufsen) 스피커가 기본 장착되어 있다.

■ 가장 가까이 있는 AI, HP AI 컴패니언

AI PC는 과거 강력한 서버가 처리했던 복잡한 작업을 직원 개인의 책상 위로 옮겨온다. 작업을 자동화하고 개인화된 추천 기능을 통해 직원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더욱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데이터 노출을 줄여 보안을 강화한다. 값비싼 클라우드 인프라를 줄이고 한층 더 비용 효율적으로 AI를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AI PC의 생성형 AI 경험은 기업 직원이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안하고, 효과적인 SEO 키워드를 추천하는 등 생산성과 개인화의 조화를 꾀한다.





HP는 일부 지원 모델에서 개인화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인 AI 컴패니언을 통해 쿼리 제한 없는 챗GPT나 코파일럿+를 제공한다.

AI 컴패니언은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문서를 분석 및 비교하거나 내용을 요약하고 추출할 수도 있다. 로컬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므로 보안 면에서도 안전하다. 또한, 백그라운드에서 디바이스를 최적화해 윈도우 11 시스템을 더욱 편리하게 실행할 수 있다. 직원은 윈도우 11을 비롯한 다양한 설정을 자연어 대화로 손쉽게 변경하고, HP 제품의 문제 해결도 더욱 편리해진다.

■ 언제 어디서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HP의 ‘스타 플레이어’

기업에서 바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만한 혁신 제품으로는 48TOPS급 차세대 AI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900만 화소와 폴리 캠 프로 등 AI 기반으로 고품질 화상회의를 지원하는 HP 엘리트북 울트라 G1i(HP EliteBook Ultra G1i)와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와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을 탑재했으면서도 초경량(1.18Kg)과 와이파이 7, 듀얼 마이크와 쿼드 스피커 등으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HP 엘리트북 X G1i(HP EliteBook X G1i)가 있다.

강력한 성능과 OLED 디스플레이가 특징인 프리미엄 노트북 HP 엘리트북 X G1a(HP EliteBook X G1a)는 최대 55TOPS급의 AI 연산 성능을 자랑한다. HP 엘리트북 X G1a는 최대 120Hz, 2880×1800 해상도를 지원하는 14인치 3K OLED 터치 디스플레이와 최대 64GB LPDDR5X 메모리, 최대 2TB SSD 등 고성능 데스크톱 PC에 뒤지지 않는 전문기급 사양을 갖췄다.

HP EliteBook Ultra G1i

- 운영체제 : Windows 11 Home / Pro
- 프로세서 : 인텔® 코어™ Ultra 5 프로세서 / 인텔® 코어™ Ultra 7 프로세서 탑재
AI 연산 전용 NPU 탑재 (최대 48TOPS)
차세대 AI 기능 기반의 프리미엄 노트북
- 디스플레이 : 14" 3K OLED, 저블루라이트, DCI-P3 100%
- 메모리 : 최대 32GB LPDDR5X
- 저장장치 : 최대 2TB PCIe Gen4 NVMe SSD
- 보안 : HP Wolf Security (Sure Start, Sure Click, BIOS 보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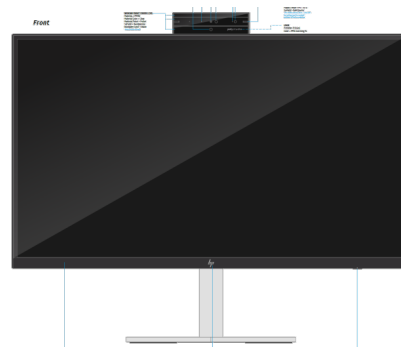
HP EliteDesk 8 Mini G1i Desktop AI PC

- 운영체제 : Windows 11 Home / Pro
- 프로세서 : Intel® Core Ultra 35W & 65W 프로세서
- 메모리 : 최대 64GB DDR5 5600 MT/s
- 저장장치 : 최대 6TB M.2 NVMe PCIe Gen4 SSD
- 보안 : HP Sure Start, HP Sure Run, HP Sure Click
- 연결성 : Dual Type-C, Thunderbolt 4, 4K 디스플레이 최대 6대 지원
- 지속가능성 : EPEAT Gold with Climate+, TCO 10 and Energy Star certified, Intel Energy Performance Optimizer



HP EliteStudio 8 AiO G1i 27*/23.8*

- 운영체제 : Windows 11 Home / Pro
- 프로세서 : 15세대 인텔® 코어™ Ultra 5 프로세서 / 최대 13TOPS 통합 NPU
인텔® 코어™ Ultra 7 프로세서 / 인텔® 코어™ Ultra 9 프로세서 탑재
- 디스플레이 : 23.8" FHD IPS, 저블루라이트, NTSC 72%, 27" QHD IPS, 저블루라이트, NTSC 72%,
- 메모리 : 최대 64GB DDR5-5600 SDRAM
- 저장장치 : 최대 1TB PCIe® NVMe M.2 SSD
- 보안 : HP Sure Start Gen7, HP Sure Sense, HP Sure Click





고성능 데스크톱이면서도 초소형 폼팩터가 눈에 띄는 HP 엘리트데스크 8 미니 G1i(HP EliteDesk 8 Mini G1i)는 고성능 AI 컴퓨팅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예: 개발자, 금융 애널리스트, 의료기관)에 적합하며 최대 인텔® 코어™ 울트라 9(13TOPS NPU 포함) 및 엔비디아® RTX 5000 Ti 시리즈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 있으며, 다양한 I/O, 업그레이드성, 견고한 보안 솔루션을 갖춘 프리미엄 미니 데스크톱이다.

또한, 대형 터치 스크린과 Poly Camera Pro(500만 화소), AI 기반 락 앤드 어웨이(Lock & Awake) 등의 특징이 돋보이는 HP 엘리트스튜디오 8 AiO G1i(HP EliteStudio 8 AiO G1i 27*/23.8*)는 차세대 화상회의를 지원해 프리미엄 협업 환경에 적합한 제품이다. 썬더볼트 4, HDMI 출력, DP 2.0 등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고, 유연하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이동성은 물론 스탠딩 데스크 등 다양한 업무환경에서 직원 만족에 기여한다. 또한, 최대 13TOPS NPU를 통합한 인텔 코어 울트라(5/7/9)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RTX 그래픽 카드 사양을 조합하면 기업 자체의 LLM과 챗봇 구축도 가능하다.

특히 업무환경과 특성, 성능 등의 목적에 각각 최적화된 폼팩터를 도입할 경우 유연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 공간 효율 등의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윈도우 11와의 마이그레이션과 함께 업무환경과 사용 시나리오에 적합한 다양한 폼팩터를 고려하는 것도 업무 프로세스 면에서의 혁신일 것이다.

HP는 슬롯이 많은 타워, 공간 효율을 증시한 SFF(Small Form Factor)와 AiO, 고성능 PC가 필요한 임시 현장이나 이동형 환경에 필요한 미니(Mini) 등 다양한 폼팩터를 기업에 제시한다.

HP 프로데스크 4 미니 G1i(HP ProDesk 4 Mini G1i)는 실용성과 비용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선택지로, 일반 사무직, 콜센터, 교육기관 등에 적합하며 높은 성능과 다양한 확장성을 보유한 제품이다.

HP 엘리트데스크 8 타워 G1i 데스크톱 AI PC는 전통적인 타워 형태로 확장성과 함께 전문가급 최대 성능을 보장한다. 동시에 HP의 소비 전력 관리 기능으로 기업의 탄소발자국 저감 노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SFF 형태의 PC는 일반 데스크톱 대비 1/2 부피로 사무실 및 업무환경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환경 제약이 있는 현장이나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협업 환경에 도움이 된다.

HP 프로데스크 2 SFF G1i 데스크톱 PC는 인텔 H770 칩셋 기반의 비즈니스 생산성을 지원하면서도 기존 SFF PC보다 확장성을 한층 높였다. 일체형 구조로 공간 절약은 물론, AI 전용 NPU를 탑재해 화상 회의나 문서 요약, 음성 명령 인식 등 AI 기반의 생산성 도구를 실행하는 HP 프로스튜디오 4 올인원 G1i 23.8" AI 데스크톱 PC는 하이브리드 업무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윈도우 11 리프레시와 IT 환경 전환의 동반자, HP

2025년 10월 14일까지 남은 시간은 기업에 있어 단순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주기가 아니라, 생산성을 제고하고 IT 환경 변화를 준비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윈도우 11은 기존 윈도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기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생산성과 협업, 보안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의 요구사항과 사용례에 맞게 확장된 업무용 PC는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에서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HP만의 보안 솔루션과 회의 및 협업 기능, 친환경 설계와 다양한 폼팩터는 기업 업무 혁신과 생산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NPU 탑재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보안, 서비스를 두루 아우르는 포괄적인 포트폴리오로 개인과 기업 사용자 모두에게 맞춤형 AI 경험을 제공한다. HP의 다양한 윈도우 11 PC는 직원 개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전사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2025년, 불확실성과 위협을 안은 레거시 IT 인프라와 업무 환경을 윈도우 11을 탑재한 최신 HP PC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새로운 시대의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확보할 적기다.



Intel Inside® 숨길 수 없는 존재감 인텔® 코어™ Ultra 프로세서 탑재